

전주시, 글로벌 관광도시 미래 비전 모색

‘전주미래도시포럼’ 9월 17~18일 개최… ‘글로벌 도시관광, 미래로의 진화’ 주제 5개 세션 진행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들과 국내의 석학, 글로벌 전문가들이 글로벌 관광도시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전주에 모인다.

전주시와 UCLG ASPAC(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EU IURC(EU 국제도시협력프로그램)는 오는 9월 17일과 18일 이틀간 라한호텔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2026 전주미래도시포럼’을 개최한다.

‘글로벌 도시관광, 미래로의 진화(Global Urban Tourism: Evolving into the Future)’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도시·기관 관계자와 분야별 전문가, 시민, 청년 등이 참여해 전주시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함께 내딛게 된다.

구체적으로 포럼 첫째 날에는 라한호텔 1층 온고을홀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세션1(MICE) △세션2(미식) △세션3(스포츠)이 이어지고, 둘째 날인 18일에는 국립무형유산원 3층 어울마루(국제회의장)에서 △세션4(야간관광) △세션5(스마트관광)가 진행된다.

먼저 첫날 세션1·2는 민경중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세션1 MICE: 도시의 경제지도를 바꾸는 힘’에서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MICE 산업을 총괄하는 피렌체 피에라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들과 국내외의 석학, 글로벌 전문가들이 글로벌 관광도시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전주에 모인다. 사진은 2025년 전주미래도시포럼 모습.

(Firenze Fiera)의 로렌조 베카티니 대표와 허준 동덕여대 교수, 모종린 연세대 교수, 백기준 휴스턴대 부학장이 ‘MICE 활용 도시 관광 플랫폼’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오후에 진행되는 세션2 ‘미식: 도시의 품미, 가치를 담은 여정’에서는 이탈리아 가토 주한 이탈리아 대사를 비롯해 장민영 대표, 박찬일 칼럼니스트, 미술랭 그린스타 김지혜 피오또 오너셰프가 강연을 통해 △전통 식문화 보존 △체험형 미식관광 △제로웨이스트 순환형 미식도시 비전 등을 다룬다.

세션3 ‘스포츠: 시대를 잇는 즐거운 도시 유산’에서는 류성욱 고려대 교수가 스포츠의 지속가능한 관광자산화 전략을 짚는다. 또한 김민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실장과 안정은 런더플 대표가 도시라닝과 관광의 유기적 관계를 조명한다.

포럼 둘째 날에는 EU 야간경제네트워크 소속 도시가 참여하는 세션4 ‘야간관광: 도시 활력의 새로운 브랜드’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이탈리아 제노바와 포르투갈 브라가의 정책 사례가 소개되고, 용선중 전주관광재단 대표이사도 지방 도시 브랜드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5 ‘스마트관광: 사람과 기술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는 EU IURC 네트워크와 연계해 진행된 다. 이 세션에서는 이충기 경희대 명예교수와 가토 쿠미 일본 와카야마대 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프라토·코임브라·세베람 페라이·강북·레 등 파트너 도시 대표의 사례가 공유된다. 또, 이승한 전주시정연구원 연구위원(탄소중립지원센터장)의 발표도 예정돼 있다.

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전 세계 도시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도시 미래 비전을 위한 글로벌 트렌드를 논의하는 자리를 이어가는 한편, 이 포럼을 도시 혁신을 위한 국제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포럼에 관심 있는 시민과 국내의 참가자 누구나 포럼 공식 누리집(www.writes.org)을 통해 온라인 사전 등록 후 ‘전주미래도시포럼 2026’에 참여할 수 있다. 세부 프로그램 일정과 연사 정보 등 자세한 사항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소지 전주시 국제협력담당관은 “이번 전주미래도시포럼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전주의 미래 관광 비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일상 속 건강관리 실천’ 보건 서비스 지원

전주시보건소, 대상별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영상 제작·홍보 강화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분야별 건강관리 핵심 수칙을 매뉴얼화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주민참여 시설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 및 홍보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동부터 노인 세대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아동·성인·노인) 특성에 맞춘 영상 및 운동 관리 방법을 10분 이내의 핵심 교육 영상으로 제작함으로써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제작된 콘텐츠는 전주시보건소 대표 ‘유튜브 채널’과 누리집(health.jeonju.go.kr) 내 ‘건강정보’ 게시판을 통해 상시 제공한다.

특히 보건소는 비만 관리를 넘어, 치매 예방과 감염병 예방 등 다양한 분야별 종합 건강 정보로 제공 범위를 확대해 시민들에게 총체적인 보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일상 속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홍보도 전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복지관 교육용 USB 배포 및 동 주민센터 단체 회의 활용 △스마트경로당 영상 상시 송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S) 및 전광판 활용 △주요 영상과 바로 연결되는 QR 코드 홍보 포스터 제작·배포 등이다.

시는 이번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매뉴얼 및 영상 보급을 시작으로, 앞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싱가포르 엑스포에서 열린 ‘싱가포르여행박람회(NATAS Holiday 2026)’에 참가해 한국홍보관 내 전주 관광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전주시, 싱가포르 최대 여행박람회서 홍보관 운영

전주시가 재방문율이 높은 싱가포르 관광객 유치에 위해 싱가포르 최대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전주 관광 알리기

전주시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싱가포르 엑스포에서 열린 ‘싱가포르여행박람회(NATAS Holiday 2026)’에 참가해 한국홍보관 내 전주 관광 홍보부스를 운영했다고 24일 밝혔다.

싱가포르여행업협회(NATAS)가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여행사·항공사·국가기관 등 77개 기관·업체가 참가하고, 약 1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싱가포르 대표 여행박람회다.

시는 이번 박람회 현장에서 현지 여행업계와 관광소비자를 대상으로 전

주의 주요 관광자원과 신규 체험 콘텐츠를 소개하고, 관광 홍보물 배포 및 상담을 통해 전주 관광상품 홍보와 방문객 유치를 공을 들였다.

특히 국내외 인바운드 여행업계와 상담 및 간담회를 진행하며 전주 관광 자원과 숙박관광객 인센티브 제도 등을 소개하고, 전주에서 숙박하는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싱가포르 방문 관광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외 관광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향후 전주 관광상품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이만호 기자

시민·행정 잇는 ‘쌍방향 소통공간’ 운영

전주시, 시민 의견 접수·공감·댓글 등 시민소통플랫폼 서비스 개시

전주시민 누구나 시청 발전과 생활 속 불편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열린 소통공간이 마련됐다.

전주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민과 행정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소통플랫폼 ‘쌍방향 소통공간(open.jeonju.go.kr)’ 서비스

를 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쌍방향 소통공간 운영은 시민의 의견을 가까이에서 듣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조치훈 전주시장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지난 20일부터 운영된 ‘쌍방향 소통

공간’은 시민이 시정에 대한 의견과 건의 사항·제언 등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행정이 답변하는 온라인 소통 창구로, 공개된 의견에 공감과 댓글을 남기며 다른 시민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시민이 제출한 의견은 접수 후 담당 부서 배정과 처리 과정을 거쳐 답변이 등록되며, 시민은 의견 접수부터 답변

까지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플랫폼 운영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의견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 시민 중심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쌍방향 소통공간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전달하고 시민과 행정을 더욱 가깝게 잇는 소통창구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열린 행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포트폴리오 리뷰’ 참가자 모집

전주시는 오는 10월 2일 개막하는 ‘제5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에서 예비 그림책 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포트폴리오 리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출판 이력이 없는 그림책 작가 지망생에게 전문가의 조언

과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작가 데뷔와 작가로서의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오는 10월 4일 오후 1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 3층에서 진행되며, 시는 사전 심사를 거쳐 지망생 10명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예비 작가 및 지망생

은 24일부터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scj1203@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누리집(jip.jeonju.go.kr) 내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사전심사 신청서 △스토리보드(1장 이상) △글 요약본(A4 1장 이내) △채색 완성본(3장 이상)이다. 기존 작업 이미지는 선택 제출 사항이다. /이만호 기자

